

법 감정과 거리 먼 수사기관의 결정 2건...당신은 이해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여성단체가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집중호우로 납골당에 안장했던 가족 유골이 떠내려가는 상황을 '사골곰탕'으로 표현하며 비하한 누리꾼들을 '무혐의' 처분한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일반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눈높이

에 미치지 못하고 '법조문에만 얽매인 기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민 관심이 많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좁히기 위한 소통 행보가 미흡한 만큼 자칫 '단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만의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수해 입은 유골 '사골곰탕' 비하...무혐의

“피해자 특정 안됐고 추상적 표현” 광주경찰, 모욕죄 6명 사건 종결 지역민 “국민 법 감정과 괴리” 지적

◇“이런데 합부로 수사종결권 쥐어하니”=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떠내려가는 집수 피해를 입은 납골당 유골을 '사골곰탕' 등으로 비하한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한 광주경찰청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경찰의 수사와 관련, “상식적이지 못한 경찰이 넘쳐난다”, “법을 적용할 줄 모르는데 합부로 수사종결권을 주면 저렇게 풀려난다”는 식의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6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31일 폭우로 침수된 광주시 북구 '새로나 추모관' 과 관련, 고인과 유가족 등을 조롱·비하하는 글을 올린 6명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최근 종결했다. 경찰은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자체 종결했다.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사골곰탕' 등의 글을 올린 점 외에 유골함이나 유족을 특정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써 유가족들의 사회적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자신의 가족이 담긴 유골함을 '사골 곰탕' 등으로 표현한 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체 종결했다”며 “사회적으로 비판은 가능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결과를 전해들은 유가족 등은 분노하고 있다. 한 유가족은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 라면 누구라도 이 글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가족과 고인을 모욕했다는 점을 알 수 있지 않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인터넷에서도 “무혐의...어이 상실”, “힘을 주면 뭐하나. 실력이 없는데...”, “이게 경찰의 한계”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담양에서 폭우로 희생된 8살 아이를 ‘오뎅탕 맛집’, ‘새끼홍어’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적용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역민 관심이 많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없었는지 불필요한 오해를 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식자리서 강제추행한 상급자...불기소

검찰 “증거 불충분·추행 의도 없어” 민변·여성단체, 광주지검 앞 시위 성인지 감수성 근거 재수사 촉구

◇“검찰, 성인지감수성 있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6일 지역 여성단체들과 전남대 산학협력단 강제추행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2019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고소된 전남대 산학협력단 A씨를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민변 등은 “검찰의 판단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검찰의 성인지감수성을 의심해볼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놓인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변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해자 다움'을 전제로 깔고 판단했다고 의심하고 있



26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다. 피해자가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피의자를 기다리며 약수를 했고 당시 직원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춤추는 등 분위기가 좋았으며 '추행 의도'를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 이유로 든 피해자가 직접 불쾌함을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학협력단에서 세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상급자로 직접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려

워 동료에게 제지해줄 것을 부탁했고 추행 즉시 나가 화내고 울기도 했는데도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민변 측은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행태로 나타난다”면서 “검찰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왜곡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봄이 내리면 좋겠네 광주지역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린 26일 북구 용봉동의 한 횡단보도를 우산 쓴 시민들이 바쁘게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저희 가게 놀러오세요' ...호객행위냐 아니냐

“손님 기망 아닌 통상적 홍보”...무죄 유흥주점 업주 A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밤 9시 9분께 광주시 서구 자신이 일하는 업소 인근 도로에서 종업원을 통해 지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전단지지를 나눠주다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44조 1항 7호)은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은 손님을 꺾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로 벌금을 부과받은 뒤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남을 속이거나 부추기는' 내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님을 꺾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는 손님을 영업장으로 유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손님을 꺾어 영업장으로 유치하는 등 '식품접객영업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선

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A씨가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신문에 전단지지를 끼워 배포하는 통상적 홍보 방법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엔 검찰이 항소했다. '종업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오라며 길거리에서 안면이 있는 손님에게 전단지지를 준 행위'는 식품위생법이 규정된 '손님을 꺾어서 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전단지지를 보고) 놀러 오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건넬 수 있는 말로, 이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손님을 꺾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 법원 판단이다. 관할 구청 허가를 받은 전단지지를 관련 조례에 따라 나눠줬고 전단지 배포 시간도 영업시간 전이라 손님들을 영업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 '(전단지지를 보고)오고 싶으면 와라'는 말 외에 손님을 꺾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 인 면 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 인 면 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리솜 리조트 제 천 포레스트 덕 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 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골드(28)방2 3,210 1,980 로얄(34)방3 4,890 3,4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캔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추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